



박은조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 “목회 =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 행복한교육목회연구원 · 고신목사회 주최 세미나

지난 10월 16일 오전 11시 OC살롬교회(나산진 담임목사)에서 행복한교육목회연구원과 남가주고신목사회 주최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담임)는 사도행전 1장 15-26절을 본문으로 “초대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자신이 은퇴까지 사역하고자 했던 서울 영동교회를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아 떠나게 됐고 성도 150명과 샘물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그는 “17년간 섬기던 교회를 두

고 개척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고,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고,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샘물교회 14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12년에 샘물교회가 관교샘물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다섯 번째로 은혜샘물교회를 개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은퇴를 5년 앞두고 있다”며 “은퇴까지 적어도 4개 교회를 더 분립 개척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을 통해 다시는 아프간을 돌아보기도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프간을 섬기게 하셨다”며 “터

키에 있는 아프간 난민 15만명 중에 절반이 이란인인데 이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터키 전역에만 100개가 넘는다.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터키 땅 450만 명 중에 10%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터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터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흘렀다”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교회와 사역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자”며 강의를 마쳤다.

## 기독교인들 박해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심각

### ‘박해 받고 잊혀진 사람들’ 보고서

지난 15일 영국의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투데이(CT)는 한 구호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가톨릭 구호단체인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한 13개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CN이 12일 발표한 보고서 ‘박해 받고 잊혀진 사람들’(Persecuted and Forgotten)에 의하면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될 경우, 이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교회가 가정을 재건하고 있다. 벽에 페인트칠을 끝내자 유니세프가 왔다”고 했다. ACN은 “서방 정부와 유엔은 이라크나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다. 대량학살이 자행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매우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ACN의 존 폰티팩스 대변인은 “희생자들의 수, 범죄의 무게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형태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중동에서 자행한 박해뿐 아니라, 약 2백만 명의 난민을 양산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의 폭력적인 박해에 대해서도 알렸다. 보코하람은 IS에 충성을 맹세한 연계 세력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굶주림, 낙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십자가에 달린 채 화형에 처해지거나 증기차로 압사당하기까지 한다. 12일 오후 영국 상원에서는 이 보고서와 관련된 행사가 열렸는데, 연설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대응을 호되게 질책했다. 이라크 북부에 소재한 니네베 평원에서 온 살라 카조 신부는 관계자들과 언론 기자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같은 도움의 매우 적은 부분만 본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난 이라크에 있으며 그곳에서 일한다. 그리고 이라

이에 리버풀의 알톤 경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매우 부끄럽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박해가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소수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에 27만 2767달러 모금

미주복음방송(GBC)이 10월 6일 하루동안 ‘공개 헌금의 날’을 진행한 가운데 27만 2767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미주복음방송은 LA, 가든그로브, 놀워, 다이아몬드바, 알바인,

토렌스, 풀러튼 등 남가주 각 지역 한인 마켓 앞과 LA, OC 특집 생방송 등을 통해 모금을 진행했고 원래 목표했던 18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모금액을 달성했다. 이영선 사장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크게 채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GBC 가족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영선 사장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 예일한인교회 조희서 목사 초청 심령 부흥성회



박은중 목사와 조희서 목사

예일한인교회(담임 박은중 목사)가 지난 12일부터 주일인 15일까지 4일간 서울씨티교회 조희서 목사를 초청해 심령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매일 저녁 7시 30분과 주일예배에서 조희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다. 조희서 목사와 박은중 목사는 아

름다운 목회 동역자이다. 조희서 목사는 17년 전, 예일한인교회가 한인타운 인근의 현재의 예배당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줄 정도로 가깝다.

예일한인교회 주일예배는 오전 10시 45분, 오후 1시에 드리며 금요일예배는 오후 8시, 새벽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드린다. 매일밤 기도회가 오후 9시가 있다. 예일한인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24시간 기도처소로 교회를 오픈할 예정이고 차터스쿨도 계획 중에 있다.

문의) 213-975-9191  
주소) 16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웹사이트) www.yehc.org



미주리 주 캔사스시에 있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의 전경

### 미드웨스턴

### 목회상담학 박사 과정 신설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인적 돌봄 목회에 적용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 가치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2018년 봄학기부터 목회상담학 박사(D.Min. in Care & Counseling)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이번 가을학기에 선교목회학(D.Min. in Missions)과 설교목회학(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박사 과정을 개설했고,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을 내년 봄에 신설함으로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목회상담학 박사 과정은 기독교 상담모델의 이론적, 실제적 적용을 위해 전문인 상담가 양육뿐만 아니라 고급 상담과정 세미나를 통해 실제적인 상담 방법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회상담학 박사 과정의 학점은 각각 총 30학점(6과목)으로 공통필수 세 과목과 전공선택 세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전공과목으로는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가의 정체성,” “결혼과 가족 치료,” “집단상담,” “상담사 슈퍼비전과 상담 센터의 운영전략,” “중독 이론과 치유상담,” “다문화 상담,” “목회와 전인적 회복상담” 등의 과목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고려대학교 심리상담학 명예교수로, 지난 35년간 수많은 전문상담가와 목회상담가를 길러 낸 한성열 교수가 지도하게 되어 본 과정의 전문성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한국 및 한인 사회는 정치적, 세대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개인적, 가정적 병리현상과 집단 이기주의로 점철된 현실 가운데, 깊은 소외와 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으로의 정체성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목회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이며 전인적인 돌봄을 목회에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담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본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드웨스턴은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대학원으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모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 학생은 총 530여 명으로 북미 최대 규모이며,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를 통하거나 최세롬 사모(이메일: lchoi@mbts.edu; 전화: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 돌로스선교교회, 정순덕 목사 초청 부흥회



정순덕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돌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가 정순덕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가을 성령 부흥회를 개최했다. 정 목사는 12일부터 15일까지 7

번의 집회 동안 “성령을 받으라”는 대주제 아래 말씀을 전했다. 13일 집회에서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다(사60”1-5)”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력히 도전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영적인 세계를 보며 불안, 근심, 무력함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당신은 염려를 정복할 수 있다,” “당신은 불안정을 정복할 수 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등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인디애나 주 그린필드에 있는 에반젤리컬 크리스천 교회에서 1981년부터 남편 래리 패닌 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특히 썬샤인 미니스트리를 창립해 중보기도와 금식기도, 내적 치유 사역을 해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골프대회 참가자들

### 평창올림픽 향해 화이팅!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미주 후원회 골프대회가 지난 14일(토) 오전 LA 동부 월넛에 위치한 로얄 비스타 골프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대회장 박준환(사우스 베일로드대학교 이사장), 준비위원장 김정환, 이준성(연세대 남가주 총동

문회 골프회장), 총무 이춘근(오렌지카운티 미주동포후원회 위원), 경기위원장 김기수, 진행 김낙영, 백우중, 김인근, 장인석 씨 등이 섭견으며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대표 이병만)가 주최하고 미주동포후원회 오렌지카운티(대표

임덕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 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방하섭)가 주관했다.

이 행사에는 이기철 총영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GMU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TRANSFORMING MISSIONS

#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선교 이슈들

11/13(Mon) 9am-5pm	제목 : 교외강신과 선교적 교회 강사 : 이상훈 교수 (SOMA 대학교 학장, 불리 겸임교수)	
11/20(Mon) 9am-5pm	제목 : 한국선교운동과제 강사 : 박기호 교수 (불리 선교 대학원 석좌교수)	
11/27(Mon) 9am-5pm	제목 : 선교적 리더십 개발 강사 : 이광길 교수 (SOMA 대학교 총장, 불리 겸임교수)	
12/6(Wed) 9am-5pm	제목 : 선교사 멤버케어 강사 : 조나단 강 박사 (멤버케어 전문가, 연인기평상담소)	
12/11(Mon) 9am-5pm	제목 : 종교개혁이 미친 선교역사 강사 : 최규남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박사원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와 이민 목회에 생명을 바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을 GMU로 초대합니다.

- ▶ 장소 : GMU 캠퍼스(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 대상 : GMU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
- ▶ 등록비 : \$50 (점심, 교재 제공)
- ▶ 선착순 50명으로 마감합니다. 10월 30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714.525.0088(담당: 황의성 목사), 이메일 dmiss@gm.edu, 홈페이지 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이사장 한기용 박사 | 총장 최규남 박사 | 교무학장 김현원 박사 | 박사원 원장 이병구 박사



포럼의 마지막은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켄 안 선교사와 이상명 총장, 송운철 교수, 김일권 선교사, 권태산 목사.



권창규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 유대인들이 2천년 간 다음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

“미운 세 살, 말 안 듣는 일곱 살, 반항하는 십대, 부모의 걱정거리인 이십대”란 말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해답을 준다.

“자식농사 주 안에서 내 맘대로 된다”의 저자 권창규 박사(코헨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가 엘에이를 찾았다. 권 박사는 침신대 M.Div.와 코헨대 기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좋은가속교회 담임목사, 유니스국제학교 교장, 미국 테필리아카데미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UBM교회(담임 앤드류 김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권 박사는 초대교회 자녀 교육의 원리와 대안을 성경적으로 제시했다.

권 박사는 “부모는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첫날 강의에서 “2천년 간 다음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권 박사는 “코스타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 가는 자녀의 95%가 신앙을 떠난다”면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회자 자녀까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30년 된 한국의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다. 이 추세로 가면 2020년이면 200만의 성도가 줄고 다음세대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년 전 영국의 기독교의 몰락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싶었지만, 영국은 천년의 역사이고 한국은 130년만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 세계 유일하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전수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교육의 원리를 실천하고 살고 있고, 그 때문에 다음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비율이 0.1%도 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어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모세오경을 암송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3번을 소리내 들려주며 태교하는 강보 교육, 2-3살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교육하는 알렘 베틀 교육, 4살-13살까지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는 하야 교육(테필린 교육) 등을 가르친다”면서 “이를 통해 초대교회 스테판 집사가 어떻게 위대한 설교를 했는지 잘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어릴 때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 역시 이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4-18살까지는 주석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상대를 논리적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는 탈무드 교육을 하고, 19살부터 22살까지 인문학 같은 세상 학문을 배운다. 그러나 말씀이 텍스트가 되어 수 십명의 노벨상 후보를 만드는 등 세상 학문을 오히려 압도해 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면서 “유대인들만의 교육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육을 통해 느헤미야와 다니엘, 에스라, 바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자”며 강의를 마쳤다.

### “피하러 말고 교회들 연대해 준비해야”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 열려

10월 16일 LA의 한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란 주제의 포럼이 개최됐다.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기독교의 관련성을 논하는 자리인만큼 주최측에서 준비한 110석이 가득 찼다.

이 행사에서는 USC 컴퓨터공학과 김선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개요,’ 하버드대학교 IT센터 부소장인 박제호 박사가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Global Media & IT 대표인 켄 안 선교사가 ‘미래 과학 기술 혁명과 사회적 윤리적 이슈,’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이상명 총장이 ‘미래 과학 기술 혁명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마지막에는 켄 안 선교사의 사회로 이상명 총장, 송운철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신약학), 김일권 선교사(오웬캠 대표),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산 목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교회로 쓰나미처럼 밀려들텐데 교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무조건 거부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명 총장은 “초연결사회로 변화되는 현대에 교회와 목회자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연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어린이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모습

어린이전도협회(CEF)에서 실시하는 새소식반(Good News Club) 전도 강습회가 10월 16일부터 시작돼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CEF 강의실에서 진행 중이다.

새소식반은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

한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새소식반 전도는 어린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수요, 금요일에 프로그램으로도 쓸 수 있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1대1 개인 전도 방법과 찬양, 성경 요절 암송, 교안작성법, 상담법 등 어린이 전도에 꼭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어떻게 새소식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새소식반을 운영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강습회 등록비는 무료다. 문의) 213-382-1544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 할까?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8>

### 이란 교회의 부흥을 보라

필자는 2016년 5월에 갑바도기아에서 열린 다민족 연합중보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그 직전에 기도회 참가자들이 13개 팀으로 나누어 터키 13개 지역을 4박 5일간 복음전도 순례를 하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13개 팀은 이스탄불에서 나와 여저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두가 갑바도기아로 모이는 계획이었다. 우리 팀(5명)은 이스탄불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 남쪽에 있는 이스파르타라는 작은 도시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남부 지역을 돌아 마지막 갑바도기아에 모두가 모여 3박 4일간의 연합기도회를 드렸다.

하이크 목사의 장례식 때 디버즈 목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대신에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라바였다. 지금 하이크가 자기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나다. 나 역시 하이크의 뒤를 이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다.”

이제 터키는 나라 전역에서 난민들을 쉽게 접할 정도로 많은 난민이 들어와 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난민들을 보았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뿐 아니다. 이라크 난민, 리비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난민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디버즈 목사도 얼마 되지 않아 이란 정부 당국의 납치와 박해로 순교하게 된다. 그 순교 사건 이후부터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와 죽음을 각오한 신앙운동을 펼쳤다.

갑바도기아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난민이 있는 곳에는 거의 교회가 있다. 특히 이란 난민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난민이 되었고 이란 난민교회는 터키 안에서도 많이 있다. 갑바도기아에는 무려 1천명 성도가 모이는 이란 난민교회가 있다. 그 지도자들과 현지 터키 교회 지도자 및 미주의 몇몇 선교 지도자들도 좋은 영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이란 교회의 예배는 뜨겁고 간절하다. 눈물을 본다. 그들의 눈물은 엄청난 박해를 이겨낸 뜨거운 신앙의 외적 표현이다. 그 이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계를 향해 일어나고 있다. 아랍어권의 나라들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다. 한인 선교사팀들과 함께 전도를 한다.

이란 교회는 핍박을 이겨낸 교회다. 1993년 디버즈 목사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뒤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을 선포하고 이란 안에서 이란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법까지 만들었다. 동료인 하이크 목사가 디버즈 목사의 석방 운동을 주도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여론까지 이끌어 마침내 디버즈 목사가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하이크 목사가 납치되어 11일 만에 온몸에 26개의 칼자국이 난 채 살해되어 시체로 돌아왔다.

미주에서는 KM, EM이라 하여 한국어권, 영어권 교회를 말한다. 터키와 이집트, 요르단 등을 가면 AM 예배가 있다. 아랍어권 교회를 말한다. 이제 세계는 아랍어권 예배가 주도하는 때가 이르르고 있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사19:23)

이집트와 이란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

## <새벽강단> 상황보다 약속을 보라

### 고난 통해 정금같이 변화된 다우니제일교회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다우니제일교회를 이끌고 있는 안성복 목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와 장로회원들.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한 다우니제일교회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35년의 세월이 말하듯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5년전 큰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은 교회로 세워가셨다. 새벽예배가 끝나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이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운다. 안성복 목사는 그런 장로와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성은 예루살렘성 하나입니다. 본문은 성 주변에 큰 군대가 와 있고 결국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고 섬기시는 모습에 새로운 성도들도 감동을 받아오. 5년 전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치유하고 아픔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 일이라면 도울 게 없을까 서로 나서서 분위기죠.”

첫 번째,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입장은 절망적입니다. 랍사게의 말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의지하던 애굽도 갈대 지팡이 같습니다. 항상 사단의 전략은 성도 스스로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돼” 하면서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나 버리셨나 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성복 목사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며 자랑한다. 안 목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저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목회자이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또 “교인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붙들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를 통해 이런 일이 유다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이 상황을 예언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안성복 목사는 새벽기도 말씀으로 이사를 강해를 전하고 있다. 지난 7일 새벽에 안 목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아래는 설교 요약.

두 번째,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히스기야에게 앗수르의 군대가 몰려오고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예수

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예수 믿고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형통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치 있게 만듭니다. 고난이란 담금질로 어떤 쇠보다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말과 행함이 일치하게 되어야 합니다. 36장 5절에서 랍사게가 “말 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면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누구를 믿는 것이냐”고 조롱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입만 살았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게 되는가, 기도의 고백과 삶의 얼마나 일치하게 되는가를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우린 말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합니다. 자기를 비울 때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화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을 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정금을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본문: 이사야 36장 1-10절  
제목: 상황보다 약속을 보라

히스기야 14년에 기원전 732년의 일입니다.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를 조공국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유다의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내려 군대장관 랍사게를 압세우고 18만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 창대장로교회 창립 19주년 헌당예배 초대의 말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민생활과 창대장로교회와 광야의 4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911테러, 4.29폭동, 노스리찌 지진, 샌브난디노 산불, 교협, 목협, 이민교회 문제, 이 모든 과정속에서도 창대장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결과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주시고 자비의 통로로 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죄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창대장로교회, 창립예배와, 헌당예배를 하나님께로,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21절하) 노숙자들의 섬김 19년동안 사랑의 손길과 나눔,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온 증인들과 함께 드릴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다 함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뜻깊은 헌당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10월 22일(일) 오후 4시  
장소 창대교회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연락처 951-966-9191  
말씀 김승곤 목사



이춘준 담임목사



교회 오시는 길



# 니느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 요나 4: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요나 선지자에 대한 고찰(考察)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시대(BC793~753)에 활동한 구약시대 선지자로서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惡毒)이 내 앞에 상달(上達)하였음이니라(요4:1~2)”고 지시하셨으나 3절 이하 요나는 여호와와의 낯을 피하여 읍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갔으나 여호와께서 폭풍을 크게 일으키사 배가 파선될 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했으나 배가 더욱 위태롭게 됨으로 배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재앙(災殃)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 내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緣故)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내가 밝히라 했을 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敬畏) 하는 자”라고 말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와의 낯을 피함인줄을 그들에게 고하였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원망(怨望)어린 책망(責望)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의 불행(不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불안이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들로부터 원책(怨責)을 당하도록 만드신답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언도(死刑言渡)를 내리고 이 큰 폭풍(暴風)은 내 죄값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니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삼야(三日三夜)를 지내야 했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왔고 자기 영혼이 바다 밑바닥을 누비고 산뿌리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으나 죽지 않도록 생명을 붙들어 살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며 죽을 힘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장에는 여호와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큰 풍랑과 고기를 예비하여 회개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선지자의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 2. 니느웨의 죄악상(罪惡相)

니느웨는 앗수르의 가장 큰 도시로 창세기 10:11~12에 보면 영걸(英傑) 니므롯이 건설(建設)한 성읍들 중 하나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서 둘레가 96Km나 되었고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었으며 앗수르 전성기(全盛期)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BC 760년경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앗수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앗수르왕은 앗수르단 3세(BC771~754)로 그 당시 인구는 남여노유(男女老幼) 약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요나 1: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 죄악들은 크게 3가지로 윤리적(倫理的)인 죄(罪) 주색잡기(酒色雜技)로 방탕(放蕩)했고 사회계층간(社會階層間) 강포(強暴)의 죄와 우상숭배(偶像崇拜)의 죄로 심판(審判)에 대한 사전(事前) 경고(警告)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실예(實例)로 앗수르는 나약한 왕들의 쇠국정책(鎖國政策)으로 국력이 쇠약(衰弱)해졌고 BC768년에는 6월에 일식(日蝕)으로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恐怖)에 떨게도 하셨으며 BC765년에는 전염병(傳染病)이 전국을 휩쓸어 인명(人命)과 가축(家畜)에 많은 죽음을 겪게도 하셨으나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 채 계속해서 같은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대심판의 경고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3일길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을만큼 큰 도시인데다 막강(莫強)한 경제력으로 부강했으며(사20:4참조) 뛰어난 건축물로 호화판 주거문화를 자랑했지만 역사가 밝혀왔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부강하게 되면 음란방탕(淫亂放蕩)하거나 강포(強暴)로 객기(客氣)를 일삼게 되거나 부귀영화(富貴榮華)에 대한 상실(喪失) 불안감(不安滅) 때문인지 미신(迷信) 우상(偶像)을 정신없이 섬김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죄악상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 3.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원치 않은 이유

오래도록 역사 속에서 여러차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侵攻)했으며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재산을 약탈해간 앗수르의 대도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려고 요나가 가서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심(內心)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滅亡)하기를 소원(所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하여 회개하고 여호와와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기에 다

시 살아 나와서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임으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3-4)” 했고 5절 이하에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애통하고 자복하기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災殃) 대신 긍휼의 은혜와 용서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편견(偏見)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성을 떠나 언덕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고 하면서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을 알았다고 하면서 4: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성명이 어찌 합당하냐”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시니 요나위에 햇빛을 가리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박 넝쿨 그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시켜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 넝쿨을 씹어 버리게 하시니 박 넝쿨이 금방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므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므로 요나가 혼곤하다며 스스로 죽기를 청하였다” 했습니다. 요나가 구약 선지자들 중 처음으로 해외 선교 사역(宣教使役)을 감당하면서도 편견에 고착(固着)되어 선교지 주민(宣教地 住民)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몰랐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육신(自己肉身)의 안일무사주의(安逸無事主義)와 이기적(利己的) 처세(處世)

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도 특히 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명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라고 했을 때 10~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培養)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심으로 긍휼과 은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며 걱정하시는 것이 심판으로 멸망시킬 근심보다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옥 형벌을 면케 된 감격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 감사드리며 주변에 지옥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과 같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알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위험과 죽음까지도 불사(不辭)하고 복음(福音)의 제물(祭物)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도행전20:24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9:14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선교사명을 실천했을 때 니느웨도 살렸고 자신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하우스**  
11월 2(목) 7:00PM



무료 앱 다운로드



###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www.sellacare.com

SEARCH

#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sup>®</sup>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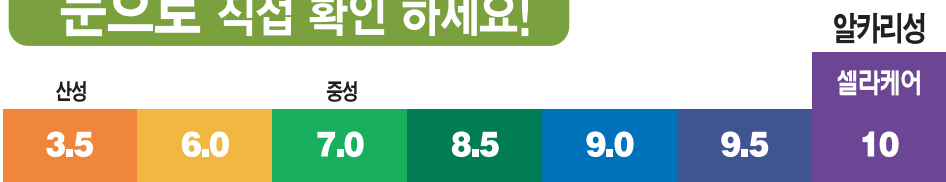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sup>®</sup>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투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투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투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진재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러브타코마 이웃초청 부흥회 개최

### 진재혁 목사 “구원은 공로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시에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원 목사)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현지시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주제로 ‘러브타코마 이웃초청 부흥회’를 개최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지역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러브타코마 이웃 초청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첫 사랑의 감격을 되새기게 했다.

이번 부흥성회를 인도한 진재혁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절)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했다.

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의 문을 여신 사랑”이라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한량없는 사랑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덧붙혔다.

진 목사는 “성경은 ‘누구든지 열심히 봉사하는 자마다’ 혹은 ‘성경을 잘 알고 깨닫는 자마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며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원은 우리의 봉사나 공로, 행위나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단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며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어드벤처루터교회 7명 교회 대표들

## 담임목사 나라와 교회 방문한 백인들 “신앙적 열정과 따뜻한 환대 감사”

### 어드벤처루터교회 비전 트립

담임목사의 나라와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자 라그랜지 소재 어드벤처루터교회(담임 박민찬 목사) 7명의 성도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난 12일(화), 애틀랜타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рма(Irma)로 비행기가 결항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약 2년 간 기도하며 준비해 온 이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권을 전역 여행해 본 적 없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 백인교회 대표 7명’은 13일 부산 김해 국제공항 도착과 동시에 9박 10일간 여러 교회와 사역기관, 기독교 문화유적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숨겨진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랑의 요양병원 이사장 이강호 목사의 배려로 최근 완공된 동래온천장 특실에 집을 품 성도들은, 다음 날부터 부전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늘푸른전원교회(담임 김일국 목사) 방문, 담임 목사의 모(母) 교회인 부산광안중앙교회(담임 김상수 목사), 남부산교회(담임 황인철 목사),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 대구동일교회(담임 오현기 목사) 등의 교회를 방문해 탐방하며 한국 교회의 진면목과 다양한 사역을 느끼고 체험했다.

이와 더불어 진주성, UN기념묘지,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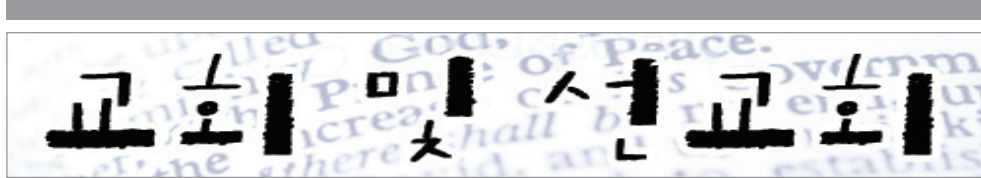
종대, 경주 불국사, 고신대학교 방문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발전상을 엿볼 수 있었고 이외에도 유명 관광지과 면세점 등을 방문해 해외여행의 묘미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 성도들의 환대와 근진한 대접, 은혜 넘치는 예배, 유쾌했던 교제를 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 성도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통해 도전을 깊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교회 중직인 오토 코스(Otto Korth) 씨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과 왕비처럼 대접을 받았다. 방문했던 모든 교회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부산은 매우 멋지고 발전된 도시였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의 삶과 교회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라고 밝혔다.

담임 박민찬 목사는 “백인교회에 청빙받은 지 7년째 되는 해이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2017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모임을 통해 이번 선교 방문이 이뤄질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부의 전형적인 백인 중심의 교회 대표들이 한국과 한국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었다”고 은혜를 나눴다.

앤더슨 김 기자



###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위한이며, 이민가정을 지원하여, 선교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번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강양규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중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 shalomch.org

**김준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승철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church.org

**김성수 담임목사**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거주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생명수 한의원

Living Water Acupuncture

**전문 진료 과목**

- 한방 신경정신과
- 불면, 불안(공황장애)
- 우울증, 조울증, 회병
- 과잉행동장애(ADHD)
- 조현병(정신분열증)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1장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1~2절)

**배상석 원장**  
 Joshua Bae L.Ac.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한방 임상 30년  
 중차한 임명장인자

**Tel. 714-761-5454**  
 520 N. Brookhurst St. #208, Anaheim, CA 92801

# 폭풍 속에서 배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배움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잘 배우는 법을 배우야 합니다. 잘 배우는 법을 배우면 일평생 유익합니다.

배움은 만남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배움은 비움입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비움은 곧 버림입니다. 모든 배움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배움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먼저 그동안 잘못된 배움을 버리고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가득찬 컵에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배움은 채움입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비운다음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충만하게 받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만히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 1:16). 지식의 질과 함께 지식의 양도 중요합니다. 많아지면 변화됩니다. 많아지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에서도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끔 풍랑을 만납니다. 가끔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가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인생이 고난만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환란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배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모든 인생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폭풍은 학교입니다. 고난은 스승입니다.

배움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때 우리의 배움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배움은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더욱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8:19).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배운 것을 나누는 나눔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움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힘입게 됩니다. 배움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 세상의 미움과 하나님의 미움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어느 남편이 아침에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화가 치밀어 오름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는 큰길까지 걸어 내려갔을 때,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쾌한 아침 바람, 반투명의 연초록 나뭇잎들. 마치 낙원에 있는 느낌이지만 자신에 손에는 쓰레기가 들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심령은 변명과 분노를 드러내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나를 덮어 주시고 용서와 기쁨의 화창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지만 정작 내 마음 속에는 항상 미움이라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득차 있을 때가 많은 것 같다. 과연 미움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미움의 문제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16-19)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닐곱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네 아비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네 어미의 법을 지키도록 등불과 빛과 같은 명령 즉 성경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대 마귀가 주는 사자와 같이 꾀계로 우리를 미움과 시기와 분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움이 아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한 랍비가 세 명의 유대인을 앉혀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첫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게다가 저는 가난합니다. 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도둑이다.”

이것을 본 두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보이다.”

랍비가 세번째 유대인을 쳐다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지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

아가는 순간마다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여정을 되돌아 보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고전15:10). 솔직히 바울만큼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바울만큼 많은 사역의 열매를 남긴 사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역경이건 순경이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를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살롬!

# “주목하는 한국교회, 부디 ‘첫사랑’ 잃지 마세요”

## 8년만에 방한한 애즈베리대학교 크리스 바운스 교수

서울신대, OMS 카우만 기념강좌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에 관해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와 OMS(One Mission Society)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카우만 기념강좌가 10월 10일과 13일 서울신대 성결인의집 존토마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의 과거와 현재(The Past and Present of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라는 주제로 애즈베리대학교 신학과 학과장 크리스 바운스(Christopher T. Bounds) 교수가 방한해 두 차례 강연을 진행했다.

OMS와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정신을 발굴·계승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매년 가을 카우만 기념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강좌는 서울신대와 OMS선교회 간의 학술 교류와 유대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서울신대의 세계화와 국제적 신학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카우만 강좌에서 바운스 교수는 “현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 배경에서는 완전히 희미해졌지만, 첫 3세기 교부들은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했다”며 “이 용어는 초기 희랍 기독교의 표현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나지만, 라틴 기독교를 급성장시키는데, 특히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안누스에게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유산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완전 신학’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그 교리에 대한 초기 희랍과 라틴의 표현은 두 가지 점에서 기본적인 것”이라며 “첫째로 웨슬리는 초기 교부 저술가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들을 ‘성경에 대한 가장 원래적인 주석가들’로 봤다. 둘째로 웨슬리안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 동방교부적 형태,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주목해 왔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초기 서방의 표현과 발전을 무시해 왔다”고 했다.

특히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그는 “웨슬리안들에게 있어 교회의 2-3세기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과 희망을 증언한다”며 “이처럼 성화에 대한 웨슬리안 교리는 처음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 일반, 특히 희랍과 라틴 교회의 발원에까지 뻗어있는 교리적 혈통을 갖고 있기에, 우리 웨슬리안 교단들은 이생에서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희망을 믿을 커다란 이유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음주의 대학의 세속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009년 제7회 기념강좌에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난 바운스 교수는 TV에서 복음주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고, 대학교 재학 시절 ‘완전 성화,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고 한다. ©이대웅 기자

이어 8년만에 방한한 크리스 바운스 교수는 강연 후 미국 기독교 캠퍼스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바운스 교수는 미국 복음주의 대학의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 2가지 요인을 꼽았다. 먼저는 ‘기억상실’이다. “기독교 학교입에도, 그 역사와 신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고백을 하지만 그 의미도 모르고, 교리에도 관심이 없지요. 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둘째로는 미국의 전반적인 ‘포스트-기독교 문화(Post-Christian Culture)’에 의한 것이다. “저는 어

린 시절 무신론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가정 안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조차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기독교의 진리는 ‘신화’처럼 여깁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중매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요.”

원인을 알았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각 대학교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협해선 안 됩니다. ‘죽더라도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원래 역사와 신학을 고집스럽게 간직하는 이사회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들이 최소한 몇 명이라도 이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들은 비즈니스와 성공, 발전이라는 논리로 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업 가운데 항상 역사와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세속화는 역시 성(性) 문제이다. 그가 재직하는 애즈베리대학교 내에도 동성애자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저희는 성윤리 차원에서 학생들이 서약을 하지만,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정도입니다. 물론 동성애든 이성애든, 결혼 외 성관계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기독교 학교

들조차 이런 문제에 점차 느슨해지고, 동성결혼까지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는 사회정의와 차별금지 차원에서 다뤄지기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운스 교수는 한 마디를 남겼다. “저희는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디 ‘첫사랑’을 잃지 마세요!”

**크리스 바운스 교수는 누구?**

크리스 바운스 교수는 한국 성결교회에 큰 영향을 준 미국 애즈베리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웨슬리안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모교인 애즈베리신학교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성결운동의 현대적 재해석 전문가로, 지난 2009년 제7회 카우만 기념강좌에서 ‘웨슬리안-성결운동 전통의 구원관과 완전성화론’에 대해 강의했다.

이 강좌가 기념하는 찰스 카우만(Charles E. Cowman, 1868-1924)은 OMS선교회의 창립자이자 1대 총재이다. 그는 1901년 1월 마틴넵의 만국성결연맹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1905년 11월 동양선교회(OMS)를 조직했다. 1907년 5월 30일 김삼준, 정빈과 함께 조선 동양선교회 영곡전도관을 시작했으며, ‘동양선교’에 끝까지 매진해줄 것을 유언하고 1924년 9월 15일 서거했다.

이대웅 기자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제공

### 채플과 엠버밍시설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장외사

# 리스장의사 장례적금

장례는 현실입니다. 이제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으로 부담을 덜어 내세요. 장례적금은 장례보험과 다르게 **양도양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도 **강제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입 또는 디파짓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약속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장례적금은 **아무 조건없이 누구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패키지		화장패키지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A \$2,270 SAVE (\$10,070)	\$7,800	A \$2,070 SAVE (\$8,070)	\$6,000
B \$2,820 SAVE (\$8,820)	\$6,000	B \$2,770 SAVE (\$7,570)	\$4,800
C \$2,170 SAVE (\$6,970)	\$4,800	C \$3,070 SAVE (\$6,670)	\$3,600
D \$1,655 SAVE (\$4,655)	\$3,000	D \$1,365 SAVE (\$2,565)	\$1,200

\*최저 23%에서 최고 \$539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이제 부담없이 마음놓고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을 통해서 \$3,000이나 절약하고 덕분에 아이들도 한결 마음에 부담이 덜 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리스장의사



Since 1966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타 장외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Lee's Mortuary FD1164 **리스장의사**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한 의사 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주님미디어 323.265.0244

칼리그래피 특성질력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미디어 323.265.0244

기독교계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공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70mm 250mm 180mm 160mm

주님미디어 323.265.0244

기독교계 칸 (일문일역)



소렉 골짜기와 소렉 동굴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7)

# 소렉을 지나 삼손을 만난 후 벤세메스까지

### 소렉 골짜기를 향해

에인 케렘 방문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골짜기를 타고 서쪽(지중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소렉 골짜기(Soreq Valley)가 시작되는 지점을 만난다. 이곳에서부터 울창한 숲을 뚫고 계곡을 타고 오르면 아슬아슬한 절벽 밑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소렉 골짜기를 만난다.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기차가 이 골짜기 밑으로 지나간다.

### 중유석 소렉 동굴

벤세메스(Beth Shemes) 쪽을 향하여 가다 보면 중유석 동굴로 이루어진 소렉 동굴을 만난다. 일반 성지 순례객들은 잘 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의 수학 여행지 코스 중에 하나다. 1968년 5월 어느 날 주변의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 발견한 이 동굴은 신비로운 중유석 동굴로서 1975년 3월 16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정비하여 개장을 하였다. 동굴 내부는 남북간 길이가 80-90m, 동서간 길이는 15-60m가 된다. 높이는 5.5m 정도다. 내부 온도가 항상 섭씨 22도 정도 된다. 습도는 92%에서 100%를 나타낸다. 산소와 물이 결합하여 강한 탄소로 만들어진 것이 중유석으로 나타난다. 석회암이 물에 의해 용해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석회암 중유석을 가지고 있는 동굴 내부는 아기자기한 석순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카로니처럼 생긴 중유석은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와 서로 만나는 신기한 모습이다. 각 중유석마다 이름이 지어져 있다. 백악관(White House), 웨딩 케익(Wedding Cake), 소돔과 고모

라(Sodom and Gomorrah), 롯의 처(Lot's Wife), 코끼리(Elephant) 등 재미있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며 신비로운 창조 세계에 흠뻑 젖어든다.

### 삼손과 들릴라

이제 소렉 동굴에서 나와서 소라(Zorah) 쪽을 향하여 가보자. 소라는 삼손의 고향으로 소라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수15:33이다. 유다 자손의 땅으로 분배된 이곳은 후에 단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수19:41) 삼손은 블레셋을 대적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나실인이 되어 소라 땅의 단지와 중 마노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삿13:1,14)

“태양과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 가장 특색 있는 자로 태양처럼 우뚝 솟아있다. 삼손은 여호와와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뉘나에서 사자를 맨 손으로 찢어 죽였다. (삿14: 5-6) 그러나 신의 사람 삼손은 사람의 딸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 원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슈켈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의복을 빼앗고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 주는, 전혀 나실인같이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인다. 장인이 아내를 보지 못하게 하자 주저 없이 여우 삼백 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한다. 결국 장인과 아내는 동족의 손에 불살라진다. (삿15: 1-7) 이 일의 결과로 삼손이 블레셋과 크게 싸우고 나귀 턱 뼈로 1천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을 지낸다.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된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힘의 원천의 비밀

을 발설하여 원수의 손에 의해 가사로 내려가 치욕의 시간을 보낸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주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운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 허무하면서 장렬한 삼손의 마지막

사사로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였던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그의 인생역정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히브리어 11:32에서는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더불어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 한다.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역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잣대와 성경의 저자들이 보는 잣대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름이 있지 않겠나 싶다. 나실인의 서원과 지킴 그리고 영원의 삶에 대하여 소렉 골짜기에서 삼손을 그리면 생각해 본다.

### 태양신을 섬겼던 벤세메스

텔아비브에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블레셋 평야와 사론 평야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벵구리온 국제공항이 보인다. 한참 더 예루살렘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평야부분이 끝나는 즈음에 세펠라가 나타난다. 도로 오른쪽에 Bet Shemesh라는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 3km 지점에 벤세메스 신도시가 나타나고, 남쪽으로 조금 더 진

행하면 오른쪽 언덕에 고대 유적이 있다. 이곳이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난 벤세메스다. 서쪽으로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면 아스라이 두마리의 암소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올라오는 모습이 환영처럼 보인다.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벤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텔아비브에서는 동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약 2km지점에 삼손의 고향 소라가 있고 동쪽 골짜기는 소렉 골짜기이다. 남쪽으로 4km쯤 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현장 엘라 골짜기가 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땅(수 21:16)이며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항상 긴장이 있었던 곳이며 유대산지와 블레셋 평야의 완충 지대에 놓여있다.

### 언약궤와 암소 두 마리

에그론에 있던 언약궤가 벤세메스로 돌아오는 과정은 삼상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에그론은 이

곳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왕국시대에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은 곳이며(왕하14:11) 아하스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도시 중의 하나이다.(대하28:18) 최근의 고고학 발굴 결과 BC2000-600년까지 가나안 거민이 살았고, 견고한 요새였으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벤세메스 유적지는 성벽과 집터가 약간 남아있을 뿐이다. 가나안 시대 태양신에게 제물을 드렸을 것이라 추정되는 동근 단이 남아있다. 동근 단에 올라 서북쪽으로 소라를 보고, 동쪽으로는 벤세메스 신도시와 소렉 골짜기를 본다. 서쪽으로 물결처럼 펼쳐진 구릉을 보면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두 마리의 암소처럼 사용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벤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오늘날도 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계속)**



벤세메스의 도시 모습

## “할렐루야!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3:15)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및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주일  
오후 3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교회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축복된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 TEL.213-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도서

####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최영기 | 두란노 | 260쪽

'신약적 가정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휴스턴서울교회를 초창기부터 은퇴한 2012년까지 담임한 최영기 목사가 국제가정교회사역원 목회자 코너에 올린 칼럼들을 엮었다.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축하고 실행하기까지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났던 기록을 담았다. 가정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실질적 목회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다.



####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

존 번연 | 이해림 역 | 생명의말씀사 | 416쪽

구원에 관한 역사적 서술과 구원의 체험 속에서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실제적 체험을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마귀가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며, 그 공격으로 성도의 내면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는지, 유혹에 저서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묘사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성령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도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



#### 머레이의 영적 능력

앤드류 머레이 | 유재덕 역 | 브니엘 | 240쪽

기독교 영성 분야의 가장 앤드류 머레이의 책이다. 영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특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끝없는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해 준다. 기도 응답의 비결, 순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능력, 영적 능력 발휘의 비밀 등을 단순명료하게 논증한다.



#### 말: 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

E. W. 케넌, 돈 고셋 | 베다니 | 256쪽

2천 년 기독교 역사 속 영성 훈련의 주요 네 가지 길을 정리했다. 저자는 한국교회 영성을 위해 미국에서 10년간 영성신학을 가르쳤었다. 거룩한 독서(레사노 디비나)와 짧은 경구를 반복하는 예수기도, 시간을 정해 드리는 성무일도, 영성일기 등 네 가지. 저자에 따르면 영성훈련은 '나'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 타인'이라는 객체에 초점을 둔다.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REVIEW

# 수많은 오해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편지, 성경

개신교회는 오직 '말씀(성경)'만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형성 과정'을 목회자 수련생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는 더더욱 성경의 존재를 성령의 신비로만 여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성경 해석과 설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어 개신교 신학서적에서 '성경론'을 다루는 곳에서조차 성경형성에 관한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개신교회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대목이다. 앞으로 개신교회 신학이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성장하고 발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와 현재 문자주의적 해석의 교리로 오해를 받고 있는 신학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형성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가 더 많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성경의 형성과 해석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간략하게 쓰고 있다. 각 시대마다 주요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의 특징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의 변천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개괄적 흐름이라 논쟁적 사상과 해석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흐름의 중요한 변천에 대해서는 일반 역사적 상황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



성서, 역사와 만나다  
야로슬라프 펠리칸  
비아 | 416쪽

루고 있다. 히브리인들의 경전 타나(개신교회의 구약과 외경)의 형성, 히브리어 타나와 헬라어 타나(성서 아인트)으로 번역이 일으킨 변화,

그리고 신약서사의 등장과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의 관계, 신구약 성경 형성 완성 이후 이슬람의 등장과 그리스도교, 유대교와의 관계와 해석의 차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불러온 성경 해석과 사회적 영향, 그 이후 계몽주의와 역사비평,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역사비평 극복,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서의 영향과 근대의 성서의 중요성 등을 어렵지 않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저자는 개신교회 입장에서 불 때 화려할 뿐 아니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루터교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 동

방정교회 평신도로 전향을 했다. 또한 본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쓴 책으로서 저자의 일평생 연구의 결론부여 해당된다.

본서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이 가진 히스토리이다. 둘째, 성경을 좀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부른다. 본서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사연이 깊은, 그리고 매우 오랜 기간을 통해 쓰여지고, 수많은 오해와 우여곡절을 겪고,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동하고 있는 편지임을 알게 된다. 강도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교(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멍골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우리를 상처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는 십자가 복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상처를 덮는 십자가의 이해

못이 박힌 각목을 잘못 잡다가 다친 경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못을 다 빼냈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개가 아직 박혀 있어 결국 손을 다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삶에 가시가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과 접촉하는 이들도 다치고, 그들 자신도 다시 상처를 입곤 한다.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앤 보스캠프 | 손현선 역  
사랑플러스 | 304쪽

겉으로는 꺾렁꺾렁하고 영 불량 학생같은 이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마음과 정에 굽주리고 쉽게 상처 받을 수 있는 착하다 착한 이들이 태반 입을 보곤 한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방황하는 모습을 여럿 보았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문제 학생일지 모르지만, 가정적이든 주변 환경의 문제로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대못 한두 개가 박혀 있을 뿐이었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염증이 있어 그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하여 터질 뿐이었다.

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아와 삶의 폐허 속에서, 치유와 그 치유된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런데 이후 살아오면서 주변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마음 한편 커다란 상처와 대못 한두 개쯤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본다. 평생시에는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 보기 드물 정도로 착하다 착하지만, 내면의 숨은 상처를 우연찮게 누군가 건드리면 강한 분노와 증오로 싸움을 일으키고 사고를 내고 만다.

어릴 적 후진하는 트랙터에 여동생이 짓겨 죽는 사고를 경험하고 또 자신도 깨어진 유리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꿈꾸었을 정도로 삶이 망가졌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되어짐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는 이야기는, 신학적인 어떠한 설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의 힘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준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을 상대에게는 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허물어뜨리다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들도 보게 된다. 결국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지식적 차원에서 그칠 수 있지만, 저자는 이것을 자신의 부서짐과 회복, 그리고 나눔을 통해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상처의 치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실감나지 않는다. 약을 바르니까 낫고 치유되어질 뿐이다.

최근 우연찮게 읽은 두 책은 그런 상처를 접근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 준다.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와 <이혼일기>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다. 상처투성이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가 내 눈 앞에서 살아난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본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변화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다. 저자는 그런 치유를 그 자신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또 그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그 체험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상처 입을 세상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지를 보여준다.

<이혼일기>는 상처를 다루거나 치유하려는 책보다는 이혼이라는 사건 전후 속에서 작가의 생각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에세이다.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인상적이지만, 근원적 측면에서 이 책은 자신의 상처나 칼을 뽑는 것보다는 그 쫓힌 칼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치유는 없어 보인다(이 책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슷한 경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자는 그의 걸여온 과정과 고민을 통해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상처와 문제에 대해 세상은 그 상처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과 상처준 이를 대항하는 법을 가르쳐 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그들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상처에 대해 나름의 논리적 설명은 있어도, 그 상처가 치유되고 미궁 같은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지 못

한다.

그러나 복음은 상처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당장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상처난 몸으로 아직 상처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세상은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한정적이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랑을 노래할 뿐이다. 그러나 저자는 비록 자신이 상처입고 대못이 하나 박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돕는다.

비록 자신의 상처로 인해 사랑하 는 아이에게도 그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치유한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상처 가운데서도 다른 이를 돕는다. 또 자신도 상대방을 믿고 상대의 사랑에 자신을 맡긴다.

저자는 책 속에서 반복적으로 팔목에 불편으로 그는 십자가를 묘사한다. 아마 그것은 어릴 적 그가 유리조각으로 그었던 자해와의 대조를 위한 듯하다. 그것을 통해 부끄러웠던 자신의 망가짐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져, 이제 자신의 상처가 남들을 해하거나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메신저와 돕는 손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교리나 논리를 넘어선다. 이것은 교리나 논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활자화된 교리에 생명력을 넣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도면으로는 도저히 그 집을 알 수 없었던 것을 3D로 만들어 입체화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책이라 말하고 싶다. 그저 책 한권 읽고 지적 배부름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 변화와 치유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 번 읽고 멈출 책이 아니라 여러 번 곱씹으며 묵상해 볼 귀중한 책이라고 할 만하다.

책을 읽다가 종종 관찮은 책을 만나 남에게도 읽기를 권하고 싶어 여러 사람에게 선물할 책이 몇 권 있었는데, 이 책은 그런 목록에 들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유진 피터슨과 필립 안시가 이 책에 쓴 찬사는 사실이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캠퍼스 변화’ 대학 과제에 ‘전도 프로젝트’ 발표한 청년 학생 전도운동 ‘펄스’ 이끄는 닉 홀



주 안에서 거듭나기 RESET  
닉 홀 | 노경실 역  
엘페이지 | 292쪽

명이 개막식에 참석해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드렸고, 봄철 대집회에서는 8,00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까지 각종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50만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지난해에는 워싱턴 D.C. 내셔널홀에서 대규모 복음집회를 열었다.

“리셋이 주는 감격은 복음이 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님은 우리 시스템 안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던 쓰레기들을 밖으로 뽑아내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깨끗하고 순수한 연료를 부어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고착화된 시스템인 습관들과 태도들, 우선순위들과 추구하는 것들을 리셋하신다.”

‘펄스(PULSE)’의 시작은 닉 홀(Nick Hall)의 대학 3학년 시절 수업 과제로부터다. 파티로 유명한 노스다코타 주립대 재학 3년간 전도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그는 영어 교수로부터 ‘학생들이 캠퍼스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지’ 프로젝트 제안서 15쪽을 작성해 조별로 15분간 발표하라는 숙제를 받았다.

<주 안에서 거듭나기 RESET>은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큰 캠퍼스 복음전도 운동인 ‘펄스(PULSE·예수님의 맥박)’ 사역을 이끌고 있는 젊은 목회자의 외침이 담긴 책이다.

“우리의 맥주를 위한 공간 확보하기”, ‘구내 주차장 늘리기’, ‘학교 내 골프 코스 만들기’ 같은 제안들이 난무한 가운데, 홀은 교수에게 찾아가 “홀로 과제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홀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전도하는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다.

어렵지 않은 문장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언뜻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의 <레디컬(Radical)>이나 카일 아이들먼(Kyle Idleman)의 <팬인가, 제자인가(Not a fan)>도 떠오른다.

“다행히 홀은 그 발표에서 살아남았고, 급우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발표 후 홀은 ‘펄스(PULSE)’라고 이름붙인 프로젝트 제안서를 학교 복사점으로 가져가, 갖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 복사했다. 복사본들을 지역 학교 세 곳에서 사역중인 친구들과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하나님의 ‘리셋’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제목처럼 ‘주 안에서 거듭나기’는 그의 핵심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세대의 맥박(pulse)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내 마음에 주셨어. 이거 읽어보고 기도해 주겠나? 그런 뒤에 함께 이야기해 보자.”

책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리셋’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계하신 대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믿음을 리셋하기, 나의 계획을 리셋하기, 나의 자아상을 리셋하기, 나의 관계들을 리셋하기, 나를 순결하게 리셋하기, 나의 습관들을 리셋하기, 나의 애착들을 리셋하기, 우리 세대를 리셋하기 등이다.


동역자들이 늘어나면서 ‘펄스’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그해 가을 2005년 9월과 10월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함께한 300명의 학생들과 공식적으로 사역이 시작됐다. 1,200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베델 신학교에서 리더십과 기독교 사상을 전공한 저자는 현재 미국 로잔 위원회, 복음주의 전국연합, 빌리그래함 복음주의협회 학생자문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기독일보와 'Repair Servant'가 함께 하는 목회자 세미나

# 목회에 스마트폰 활용하기

스마트폰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나누는 이번 세미나에서 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교 본문 작성  
IT를 이용한 전도 방법  
카카오 플러스 친구 소개

- 강사 : 윤승준 집사 (36년 경력의 IT 전문가 / GBC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진행자)
- 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기독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10 \*선착순 20명으로 마감하니 전화로 등록 바랍니다. (213)739-0403, (213)434-1170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 프로지 골드

###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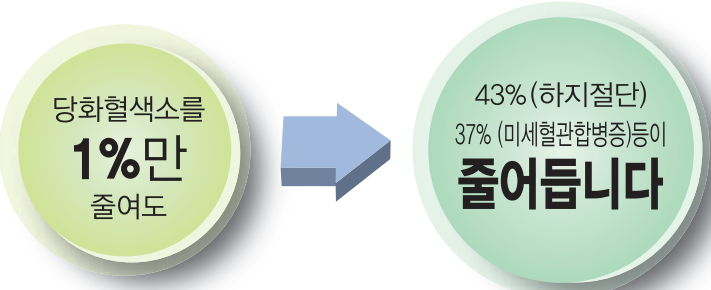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